

# 정부, 아베 '도발'에 대일 외교 기조 재검토

## 과거사 문제·정상회담 등 로드맵 수정

### 안철수 "아베 저지 위한 국제연대 필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를 계기로 정부가 대일외교 기조 재검토에 착수했다.

7년 만에 이뤄진 현직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외교 기조가 상당히 흔들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이전과 이후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동안 했던 정책 기조대로 그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된 일본의 도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 않고서는 한일관계 안정화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에 맞게 기조와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검토 방향과 관련,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제의 등 일본의 대화 공세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사 문제와 정상회담 등 중요 외교일정이 사실상 포괄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정부는 일본과의 차관급 전략 대화나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등에 정 일정을 전면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양자 차원의 외교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전례 없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수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그동안 실무수준에서 고위급으로 접촉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며서 관계 복원을 시도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정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경제, 문화 등의 영역은 가능한

분리 하겠지만 안보나 과거사 문제, 정상회담 등 큰 것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톱 크게 (과거사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에 응해준다면 관계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실수가 아니라 신념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

정부는 또 다자회의 계기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동북아 정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등을 환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에 대해 27일 성명을 내고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깨는 행동"이라며 "아베의 길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일본의 양심적 지식사회에도 호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행뉴스



아베 규탄

아베이연한 회원들이 27일 오후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행뉴스

## 강운태 시장 국비확보 막판 총력전

강운태 광주시장이 막판 국비확보 위해 휴일도 반납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강 시장은 지난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방문해 이근현 예결위원장과 최재천 민주당 계수조정소위 간사, 임내현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신규·추가 및 증액사업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특히 동광주~광산 I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 영동~담양~대전간 도로 확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지역 설립, OLED조명산업 클러스터 조성산업 등 20여건의 지역현

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추가 예산 반영을 해 줄 것으로 강력히 건의했다.

시는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 예산 설명회,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수시 방문, 국비담당 직원 국회 상주 등의 노력을 해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내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남도학숙 입학생 372명 모집

광주·전남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한 서울지역 기숙사 시설인 남도학숙이 2014년도 신규 입학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전체 정원 850명 가운데 현재 입사중인 478명을 뺀 372명이다. 광주와 전남 각 186명씩 선발하며 남도학숙은 192명, 여학생은 180명이다.

지원자격은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대학원생(석사과정)으로 보호자 주민등록이 공고일인 12월 30일 현재 광주 또는 전남에 있어야 한다.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교 3학년 1학기 학교성적이 평균 6등급 이상, 재학생과 대학원생은 전체 학년 평점 B과점 이상이어야 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입사 희망자는 남도학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년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보호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구·군 등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면 된다.

대학교 신입생은 합격자 발표 전이라도 대학원수업료로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반드시 기간 내 접수해야 한다.

신규 입학생은 오는 2월 7일 광주시와 전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남도학숙은 지난 1994년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들어선 이후 현재 월 14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광주·전남 출신 대학생 9000여명이 이용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신성장동력 '치과산업' 탄력

## 250억 들여 '치과용 생체 부품 기술센터' 착공

### 2019년까지 200개 업체 입주·1조원 매출 기대

광주시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중인 치과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내년이면 광주 첨단단지내 전국 유일의 '치과용 생체 소재 부품 기술센터'가 착공하는데 이어 국내·외 치과기업들도 광주 입성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번 센터 유치는 의료복합단지 지를 갖춘 충북 오송과 치과 의료기기 산업에 주력중인 대구와의 경쟁은 물론 유치전(광주일보 3월 5일자 1

면)에서 따낸 것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광주시 북구 월출동 첨단단지 내에 치과용 생체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국비 100억원 등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해 광주 첨단단지 내에 부지 3900㎡, 연면적 4312㎡ 지상 2

층 규모로 생체부품 생산시설, 시험 및 평가 지원실, 기업 공동 연구 개발 실 등을 갖춘 치과용 생체소재 부품 기술 지원센터를 짓는다.

국가에서 직접 주도하는 치과 관련 센터로는 전국에서 최초이며, 치과 소재 관련 국가 R&D 사업을 비롯한 치과 소재부품 생산 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시는 치과산업이 자동차·금형, 정보기전산업, 광산업에 이어 광주의 미래 4대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센터 건립을 계기로 전

남대와 조산대 등 지역 내 대학 등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광주를 전 세계의 치과산업을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치과기업의 광주 이전도 줄을 잇고 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80여개의 치과소재 기업이 광주로 옮겨왔으며, 올해에만 국내 13개 치과 관련 기업이 광주 이전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14개 기업이, 2019년까지 200여개의 치과 기업이 광주에 둥지를 틀 것으로, 광주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 미국 다나카켄탈과 이탈리아 레

다쉬스톤, 중국 K트레이딩 등 3개 기업이 입주하는 등 해외기업의 이전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단을 구성, 독일 쾰른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치과 기자제 전시회인 '독일 치과 기자제 박람회(IDS)'에 참석해 78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는 국내외 치과 기업의 이전이 이어짐에 따라 광주 진곡산단에 타이타늄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첨단단지내 치과기업분양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019년까지 목표로 한 200개 치과기업이 들어서면 신규 고용 창출 1000여명에, 연간 매출액은 1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서구의회, '체불임금 보전 논란' 추경예산 통과

광주 서구의회가 예산안 전체가 부결되는 등 논란을 겪었던 서구청 민간위탁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노조 측은 "업체가 부당하게 체불한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부당한 예산통과다"며 구청과 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3289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추경안에는 서구청이 민간위탁한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88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업체의 고용승계비용 8200만원은 예결위에 서 삭감돼 빠졌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임금삭감과 위·수탁계약 미준수 등 문제로 총과업이 일어난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한 서구청의 추가 지원을 놓고 의원 간 이견으로 한차례 부결된 바 있다.

추경안 의회 통과와 관련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성명을 내고 "서구청이 이미 지급된 민간위탁비가 존재하는데도 악덕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는 결국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또 "수많은 위·수탁 계약 위반 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환수 조치는 않고 오히려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데다 불법 부당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월수익 420만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APT코너

신축 4층 룠 19개 (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전문 원룸

룸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전문원룸

룸 18개 월수익 580 매가 7억

주)대신건설개발 ☎010-6670-9800

###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해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워터뷰와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 지 4,900㎡ 건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차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 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 주택부지 및 생활용지라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

###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모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앞)

원룸

14개를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9천 (용1억3)

수원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 (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

### 해남 관리지역 (낮은 야산) 금매

문내면 석교리 5300평

평당 3만원

폭6m 현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회원면 조선배후 단지 가능

밭,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태양광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